

금호타이어 조기 정상화 힘로 예고

노조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여유인력 재배치·임금체계 개선·정년연장에 부정적

금호타이어 노조가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영업오더(주문) 축소, 7분기 연속 적자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의 단체교섭 합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도 협로가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반투표 부결 이후 금호타이어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2018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 659표(24.1%), 반대 2061표(75.5%)로 부결시켰다. 노조 전체 조합원 3042명 중 2천729명(89.7%)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 집행부가 투표에 앞서 "금호타이어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노조원의 충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합의안)을 결정했다"며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사가 잠정 합의안 ▲여유인력 재배치를 반영한 공장 운영계획 ▲임금체계 개선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운영계획의 경우 노사가 애초 최장 101일에 이르는 공장 휴무(광주공장 44일, 곡성공장 60일, 평택공장 101일) 계획 대신, 3만7000개(하루) 생산 규모를 3만개로 축소하면서 여유 인력 규모를 186명으로 줄여 운영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장 내부 인력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체계 개선도 세부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 미달 문제와 연계한 상여금의 기본급 포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며 부정적 분위기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 방안도 인력 재배치 문제와 연계되면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후문이다.

노사가 마련한 단체협약이 부결되면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회사 내부에서도 올해 영업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 5.1% 증가, 매출량 5.8% 증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력 재배치나 등 공장 운영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악화된 영업 실적 개선, 거래처와의 신뢰회복 활동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데 따른 답답함이 감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대의원 대화를 열고 노조원 의견을 수렴, 재교섭 여부와 관련된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전대진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오는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5.85 (+24.37) ↓ 금리(국고채 3년) 1.79 (-0.01)
 ↑ 코스닥 742.27 (+2.36) ↑ 환율(USD) 1125.10 (+3.40)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이달 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접수를 받는다. 한 지역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캠코 장기 소액연체자 빚 탕감 신청 이달 말 종료

장기 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빚 탕감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캠코)는 장기 소액연체자들을 위한 빚 탕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 등으로 신청이 어려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는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등에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지난해 복구와 공동으로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소액채무자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신용서포터즈'는 광주 북구청 사회복지공무원과 각 동 통장 등 80여명으로 구성, 지역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홍보해왔다.

홍창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350여명이 재기지원 혜택을 봤다"면서 "제도 종료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지부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전화(1588-35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지난해 매출 9.8조

유동성 위기설 진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실적 공시를 계기로 고유가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변수들의 영향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동성 위기설을 차단하겠다는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금호아시아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9조 7835억원, 영업이익 2814억원, 당기순이익 130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과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변수 영향에도 전년 대비 10% 증가한 매출을 올리는 등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자체 평가다.

경제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등 계열사가 실적을 공시하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실적까지 모두 묶어서 언론에 배포한 적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부채비율과 차입금 규모까지 알려며 유동성 위기설에 반박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그룹 사옥 매각, CJ대한통운 주식매각, 아시아나IT, 에어부산 상장 등을 통해 그룹 전체 부채비율을 전년보다 약 30%포인트 낮춘 364.3%로 개선했다. 그룹 차입금 규모도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줄여 3조9521억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매출 10조25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을 올해 목표도 설정,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 목포·영암·함평 중기 방문 애로 청취



송중욱 행장(왼쪽 두번째)이 대불산단 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 대아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3일 송중욱 은행장이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영암·함평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중욱 행장은 대불산단에 소재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 대아산업(대표 고창희)과 목포도시가스(대표 정경오), 함평 소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 (주)사조바이오피드(대표 이상

주) 등을 잇달아 방문해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조선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공장 및 연구실을 직접 둘러보고 주요 사업 현안을 살펴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송중욱 은행장은 "신규 수주 증가로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조선업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지역 조

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행장은 "향후에도 조선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울 때 우산을 뺀 것이 아니라 더욱 보듬어주는 울타리 같은 광주은행이 되겠다."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스팅어 알칸타라 에디션 출시



기아차 스팅어 알칸타라 에디션이 출시됐다.

스포츠세단 스팅어 가솔린 2.0 터보 모델의 플래티넘 트림에 알칸타라 소재와 외장 디자인 차별화 요소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스팅어 알칸타라 에디션은 기어노브와 스티어링 휠, 콘솔암레스트 등 운전자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에 알칸타라 소재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탈리아 명품 소재 기업인 알칸타라가 생산하는 인조가죽인 알칸타라는 초극세사 섬유로 만들어져 방수성이 좋고 오염도 잘되지 않는다.

또 다크룸 사이드미러와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알로이 휠, 후드 가니쉬 등 외장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는 주요 품목도 기본화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스팅어 알칸타라 에디션의 가격은 3880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중 스팅어 알칸타라 에디션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선글라스와 보스틴백, 스팅어 다이어스트, 카본 열쇠고리 등을 제공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북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북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본 투시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기림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행 | 기보중합건설